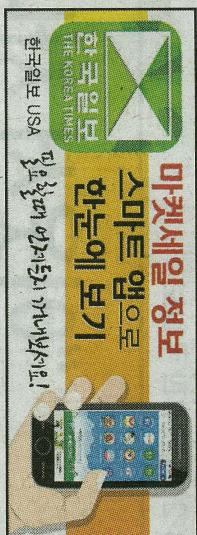


# 한국일보

THE KOREA TIMES

2018년 4월 20일 금요일



A 미주판 New York (제14925호)

Friday, April 20, 2018

## 결혼 영주권 수속중 '추방재판' 날벼락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불체자 범죄기록 심사 강화  
결혼 영주권 인터뷰 도중 체포되는 사례도 잇따라

최근 시민권자 남편과 결혼한 성영희(32·기생)씨는 결혼 영주권 수속을 끝냈다가 난데없이 추방재판에 회부됐

다. 11세 때 캐나다에서 밀입국하다 적발됐던 것이 문제였다. 적발 당시 추방 재판에 넘겨진 사실도 모르고 불법체류자로 살아온 성씨는 2012년 불체정

소년 추방유예프로그램(DACA)을 통해 추방유예가 된 후 얼마 전 시민권자와 결혼했지만 배우자 초청 영주권을 신청하던 중 이민당국이 약 20년

전 추방명령을 받았던 사실을 적발한 것이다.

현재 변호사를 통해 추방케이스 재심사를 요청해 놓고 있는 성씨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며 허탈해했다.

연방이민당국이 최근들어 결혼 영주권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면서 불체자들이 추방을 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실한 걸이라고 예상했던 시민권자와의 결혼도 더 이상 인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국이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불체자들의 과거 범죄기록이나 추방명령 기록을 살살이 둑 볼체자들을 위한 결혼 영주권 신청 서류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결혼 영주권 인터뷰를 위해 이민국을 찾았다가 그 자리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되는 경우 도 반면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불체자들의 결혼 영주권 인터뷰 과정에서도 첫 데이트 및 상견례 장소, 결혼반지를 구입한 곳 등 아주 세세한 것까지 꼬치꼬치 물어볼 것을 조했다.

이민법전문 송주연 변호사는 "이민

국은 오래전 이민법 위반 기록까지 뒤져 신청자의 결격 사유가 없는지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다"며 "주소지 이전 등으로 추방재판 회부 사실을 몰랐다가 추방 명령을 받은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고 결혼 영주권 인터뷰에 간디가 체포되는 한인들도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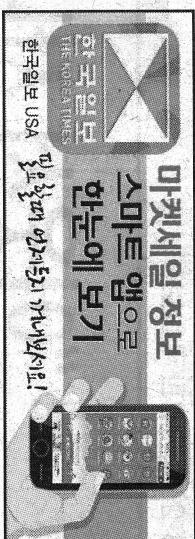
그는 또 "불체 경험이 있는 경우 이민 수속 진행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야 한다"며 "사소한 범죄라도 이야기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승재 기자〉  
sjseec@koreatimes.com

# 한국일보

THE KOREA TIMES

2018년 4월 20일 금요일



## 결혼 영주권 수속중 '추방재판' 날벼락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불체자 범죄기록 심사 강화

결혼 영주권 인터뷰 도중 체포되는 사례도 잇따라

최근 시민권자 남편과 결혼한 성영희(32·가명)씨는 결혼 영주권 수속을 끝냈다가 난데없이 추방재판에 회부됐다. 11세 때 캐나다에서 밀입국하다 적발됐던 것이 문제였다. 적발 당시 추방 재판에 넘쳐진 사실도 모르고 불법체류자로 살아온 성씨는 2012년 불체 청소년 추방유예프로그램(DACA)을 통해 추방유예가 된 후 얼마 전 시민권자와 결혼했지만 배우자 초청 영주권을 신청하던 중 이민당국이 약 20년

전 주방명령을 받았던 사실을 적발한 것이다.

현재 변호사를 통해 추방케이스 재심사를 요청해 놓고 있는 성씨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며 허탈해했다.

연방이민당국이 최근들어 결혼 영주권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면서 불체자들이 추방을 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실한 것이라고 예상했던 시민권자와의 결혼도 더 이상 인전하지 않은 것이다.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국이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불체자들의 과거 범죄기록이나 추방명령 기록을 살살이 둑아내는 등 불체자를 위한 결혼 영주권 신청 서류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민국은 결혼 영주권 인터뷰를 위해 이민국을 찾았다가 그 자리에서 연방 이민체관단속국(ICE)에 체포되는 경우 도 반복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불체자들의 결혼 영주권 인터뷰 과정에서도 첫 데이트 및 상견례 장소 결혼반지를 구입한 곳 등 아주 세세한 것까지 꼬치꼬치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법전문 송주연 변호사는 "이민

국은 오래전 이민법 위반 기록까지 뒤져 신청자의 결격 사유가 없는지 등을 절제하게 조사하고 있다"며 "주소지 이전 등으로 추방재판 회부 사실을 몰랐다가 추방 명령을 받은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고 결혼 영주권 인터뷰에 갔다가 체포되는 한인들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불체 경험이 있는 경우 이민 수속 진행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야 한다"며 "사소한 범죄라도 이야기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고 조했다.

〈서승재 기자〉  
sjsec@koreatimes.com

A 미주판

New York

(제14925호)

THE KOREA TIMES

Friday, April 20, 2018